

# 시군지역 역량강화 추진

## 남원시, 농한기 15개마을 농촌 활력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위해 2014년부터 예비단계인 시군지역 역량강화사업을 단계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7개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등 637억 원을 확보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는 중앙단위 역량단계별 지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남원시 자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매년 2억원을 지원한 결과이다.

남원시는 농한기를 이용 15개마을에 1개월동안 농촌활력을 불어넣는 프로그램(미용, 요리, 물박놀이) 3천만 원을 지원해 공동관심사 공유로 마을 공동체형성은 물론, 기쁘게 자신의 가치성 향상 그리고 요리하고 먹는 즐거움으로 농촌활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2억원을 지원 예비단계인 소규모 자체사업, 마을색깔찾기, 마을리더

교육, 공무원역량강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완료하여 내년 4월 중앙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남원시는 내년도에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 50개마을 2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농촌에 감성을 채워 행복마을, 활력남원을 만들기 위해 단계별(1단계 참여형-공동체형성, 2단계 문화복지형-공동체정착, 3단계 자율형-마을자원개발형, 4단계 공모사업 정착형) 농촌활력프로그램을 지원 역량강화를 정착 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특산품부문 3년째 최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이 트래블어워즈 특산품부문에서 3년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8일 전남 광양에서 열린 2018 제4회 트래블어워즈 어워드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특산품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트래블어워즈 시상식은 문화마케팅연구소에서 주최하고 트래블어워즈와 트래블투데이가 주관해 총 8개 부문, 24곳의 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행사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장에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관광

상품과 마케팅 활성화 등 관광분야에 대한 정보공유의 자리도 가졌다.

이번 심사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선정단계 등 총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4곳을 선정했다.

정량평가는 지난 1년간의 지역관광 정보 제공에 대한 지역기관 참여도, 트래블피플 관여도 등의 활성화 수준을 산출한 지역호감도를 바탕으로 진행돼 객관성을 확보했다.

2차 정성평가는 지역호감도 지수를 기반으로 트래블투데이 편집부와 트

래블투데이 주재기자,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의로 진행됐다.

이번 수상은 고추장의 전통을 잇는 명인이 만든 고추장이 여전히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전통고추장에 이어 퓨전장류인 토마토발효고추장 개발로 관광객의 눈길을 끈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토마토발효고추장은 일반고추장에 비해 부드러운 맛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 명절선물로도 인기가 높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임실군은 기존의 획일적인 표준형 건물번호판을 벗어나, 건물 특성에 맞는 자유로운 디자인인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권장에 나섰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표준형 건물번호판 규격과 비교해 작지 않으면 되고, 모양, 색깔, 재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제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내 건물들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되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 주변 건물과 차



별성을 가질 수 있어 단순한 주소 표기를 넘어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국토정보팀으

로 제출하고, 이후 제작 가능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면 된다.

다만,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 신고할 경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표준형 건물번호판에 비해 눈에 잘 띄어 사람들이 잘 구분해 낼 수 있고 홍보효과가 뛰어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다문화가족정책 설문조사 만족도 향상

순창군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군에서 지원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관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다문화가족들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5

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으며, 213세대 다문화가족이 조사에 응했다.

한국어와 영어, 베트남어 등 총 9개 언어로 설문지가 제작돼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사회과학연구원 박신규 박사가 최종 도출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외국인 아내의 51% 정도가 한국인으로 귀화했고, 출신국적을 보면 베트남, 중국, 일본의

순으로 구성됐다.

순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의 거주기간은 63.2%가 9년 이상의 장기거주의 형태를 보였고 동거가족은 대부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였다.

다문화가족들이 앞으로 지원받고 싶은 사업은 자녀교육 지원이 20.8%로 가장 높았고, 한국어교육, 모국방문기회 확대,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의 순으로 응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관광과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린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 생각하는 근무환경 조성

### 남원시 관광과 다양한 콘텐츠 살려

남원시 관광과는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린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무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어서 화제다.

남원의 주요 관광명소인 산내 천년송 두그루가 그려진 벽화 한쪽에는 "천년의 사랑 청령한 남원"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상쾌함과 함께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읽을 수 있게 한다.

남원시 관광과는 매일 2회씩 근무자 직전에 지역의 명사를 초청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자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다짐하기 위해 "명사초청

청령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교감을 형성하는 좋은 학습법으로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한다.

이현재 관광과장은 이러한 추세가 남원시 산하 전 부서에 확산되어 공무원들이 스스로 청렴하고 진절찬 근무자세를 다지고 외부의 생각과 눈높이를 맞추어 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방하는 시민들도 지역에 대해 좀더 알리고 노력하는 좋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시민의 향토사에 관한 관심을 고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남원 문화관광 상식교사"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향토사단인 35사단 장병 150여명은 보절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 육군 35사단 등 17년째 보절면서 봉사활동 나서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육군 35사단 장병 및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6-(전북)지구 회원 등 150여명은 29일 남원시 보절초등학교에서 대민 종합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는 보절면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를 실시하고 감사패(소인선 전 발전협의회장) 및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사단은

공공회기 사격장이 위치한 보절면 주민과의 감동을 최소화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합의를 체결 이후 17년째 봉사활동 등을 마련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허관 보절면장은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 이용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군, 민관환경 문화

### 어울림 한마당 개최

순창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관환경 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군은 29일 순창국민체육센터에서 군인과 경찰, 사회복무요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순창 민관환경 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순창사안연합회가 주관하고 순창군이 후원해 각자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군인과 경찰, 사회복무요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황승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정성균 의장, 대모안 동산스님, 김수일 육군 35사단 순창·임실대대장, 육군 1625부대 김형석 소령, 순창경찰서 주홍식 정보보안과장 등이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오전에는 배구와 축구 등 체육활동과 감사패 수여, 축사에 이어, 오후에는 참석자들의 자기자랑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를 주관한 동산스님은 "오늘 초대 한 군인, 경찰, 사회복무요원들은 대부분 20대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관촌면, 맞춤형 재능봉사단

임실군 관촌면에서는 재능봉사자의 참여와 나눔을 통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정착시키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을 운영해 감동을 주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관촌면 북부권노인복지관에서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주최하고 임실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행사가 봉사자와 관내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재능봉사에는 네일아트, 천연염색, 방황제만들기, 수지침봉사, 서툰요법 서비스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배우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기존 봉사활동보다 더욱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봉사활동과 사회전반에 효율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재능을 가진 분들이 봉사로 재능을 나누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